

## 집합 기억과 기독교 윤리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

### I. 서론

기억(memory, remembrance)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여 인간의 행위를 지속케 하는 뇌의 정신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은 주로 대뇌피질(Cerebral cortex)과 측두엽의 신피질(neocortex), 그리고 해마(Hippocampus)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인과관계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삶을 지속케 한다. 뇌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기억에 관한 연구는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에 대하여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기억은 물론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억은 동시에 일련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집합적 기억’이기 때문에, 집단을 구성하는 인간의 정치나 윤리적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필자는 이 관점을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sup>1)</sup>

필자는 뇌 과학에서 강조하는 ‘집합 기억’에 대하여 신학과의 통섭(consilience)을 위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뇌 과학의 ‘집합 기억’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보겠다. 특히 ‘집합 기억’

<http://dx.doi.org/10.18708/kjcs.2017.10.106.1.205>

- 1)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인간의 ‘기억’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로 보는 해석을 따르고 있다. 참고. K. A. 메닝거/설영환 옮김, 『인간의 마음—무엇이 문제인가?(1)』(서울: 선영사, 1986), 252.

의 중요한 기능인 기억작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consolidation)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둘째, '집합 기억과 신앙공동체'란 관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억'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기'(remembering)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망각'(oblivion)을 극복하는 책임윤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집합 기억과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 뇌 과학과 신학의 통섭을 시도하면서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억에 관한 생물학적인 기능들이나 해석은 간략하게 다루고, '집합 기억'에 대한 논지들을 소개하며, 이를 신학,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 결과 기독교 신학분야의 미개척 분야인 뇌 과학의 '집합 기억'에 대한 이론들을 통한 신학과의 통섭이 양 분야의 기초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II. 집합 기억

기억이란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 간 연결된 시냅스에 의한 총체적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2)</sup> 기억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인간의 의식과 연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으로서 무의식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하나는 선언적 기억(declarative memory)으로서 의식을 통하여 기억을 회상할 수 있다.<sup>3)</sup> 또 다른 정의는 기억을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기억은 현재적으로 활성화되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보를 재조직하는 조작을 수행하는 작업 기억(working)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장기기억은 앞에서 정의한 서술 기억, 또는 절차 기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4)</sup> 한

2) 박문호, 『뇌-생각의 출현』(서울: 휴머니스트, 2008), 87, 106.

3) 성영신·강은주·김성일 엮음,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 (파주: 해나무, 2004), 33.

4) 앞의 책, 164-181. 장기 기억을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구분한 사람은 캐나다 심리학자인 툴빙(Tulving)으로 알려져 있다. 앞의 책 재인용, 165. 서술 기억은 정보의 형태의 따라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면서 세상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담당하는

편, 기억을 뉴런의 차원에서 단기적인 의존적 기억(activity-dependent memory)과 장기적인 구조적 기억(structural memory)으로 나누기도 한다.<sup>5)</sup>

필자는 이제 본고에서 ‘집합 기억’에 주목하고 뇌 과학의 이론을 검토 하면서, 신학과 소통할 수 있는 예비적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sup>6)</sup> ‘집합 기억’에 대한 영어권의 이론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집합 기억’의 구성적 요건으로서 개인과 사회 문화적인 관계, 자서전적 기억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억하기의 투쟁적 과정, 그리고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회상되고 공유되고, 집단으로 기억되는 상호작용적인 요인들로 나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자.

첫째, ‘집합 기억’은 기억과 연관된 사회적 요인들을 재구성한 사회적 틀을 중시한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출신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1877-1945)로 알려져 있다.<sup>7)</sup> 그는 인

---

‘의미 기억’(semantic memory)과 과거의 경험을 구성하는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의 형태인 ‘일화 기억’(episodic memory)으로 나누기도 한다. 앞의 책, 165, 174, 181. 일화 기억은 경험의 대상에 관한 ‘내용 기억’(content memory)과 장소 및 시간 등을 담당하는 ‘맥락 기억’(context memory)으로 나누기도 한다. 앞의 책, 179. 한편, 기억을 ‘무의식적 기억’과 ‘외현 기억’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틀빙의 제자인 새크터((Schacter)가 주장하였다고 소개된다. 앞의 책 재인용, 165.

- 5) 크리스토프 코흐(Christof Koch)/김미선 옮김, 『의식의 탐구』(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202. 이러한 정의는 이스라엘 신경 생물학자인 야딘 두다이(yadin Dudai)의 해석으로 소개된다. 앞의 책 재인용, 202.
- 6) 최근 신학분야에 뇌 과학과 신학의 통섭이 이루어진 필자의 저서와 논문들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로 본 논문 중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집합 기억’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일부 재인용 내용들은 별도의 재인용표기를 하지 않음을 밝힌다. 유경동, 『뇌신학과 윤리』(개정판, 서울: 킹덤북스, 2016), 319-324. 한편 논문으로서는 뇌 과학의 관점에서 배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살펴본 내용이 있다. 유경동,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생명윤리정책연구』 8-2(2014),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 177-201. 아울러 ‘뇌기능’과 ‘뇌의식’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도덕적 범주화의 관점에서 ‘집합 기억’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래의 논문에서 강조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유경동, “뇌기능과 뇌의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윤리적 공동체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6(2015), 39-66.
- 7) 이하 모리스 알박스의 이론을 소개한다. 참고)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r.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간의 개별적 기억은 보다 큰 사회적 틀 안에서 형성된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에 내장되고(embedded) 구성되는(constructed) 것으로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나 배경이 인간의 기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그는 ‘집합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본다. 즉, 기억이란 자기 자신이 저장한 특정한 정보를 도출하기도 하겠지만, 타자가 보이는 반응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발현되고, 그러한 반응을 중심으로 타자의 관점을 유추하는 과정이 형성된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별적 기억들은 많은 내용들이 사회-문화적 조건이나 상황과 연관성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알박스는 기억이란 외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또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합 기억’이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에 대한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이 기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배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점에서 기억은 ‘집합 기억’을 통한 개별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집합 기억은 기억의 통합작용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나스타시오(Thomas Anastasio) 등은 집합 기억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기억의 통합’(memory consolidation)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이들은 기억의 통합작용은 개인 기억이나 ‘집합 기억’이나 유사성을 가지는데, 특히 그 기억이 유사하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한 기억 통합 과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집합 기억은 집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두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보다 더 쉽게 관찰될 수 있다고 본다.<sup>10)</sup>

8) 앞의 책, 38.

9) 토마스 아나스타시오는 기억작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은 각각 ‘통합’(consolidation), ‘기억하기’(remembering), 그리고 ‘기억체계’(structure)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집단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보며 이 때 집합 기억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석한다. Thomas J. Anastasio et al.,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y Consolidation: Analogous Processes on Different Level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2), 47-48. 이 인용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한다. 유경동, 『뇌신학과 윤리』(서울: 킹덤북스, 2016), 321-322.

둘째, 집합 기억은 기억하는 개인 주체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상대적이며 부정확한 특성 때문에 오히려 ‘기억의 유연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집합 기억 이론은 기억의 저장과 도출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이나 조건에 보다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대니얼 샹터(Daniel Schacter)는 집합 기억이란 사실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거나 실용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집합 기억이란 비유적인 표현이며, 그것이 어떤 실험적인 조건을 갖추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샹터는 기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기억으로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출된 정보가 반드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의 맥락에서 도출되어야만 하며, 그 자신이 그 특정한 상황 속에 있음을 지칭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합 기억이란 사실 기억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억이 도출되는 상황이나 배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유사 기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샹터가 집합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기억 작용 자체는 사실 재구성적이며(reconstructive), 왜곡과 부정확성이 많다는 점에서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이 외부적 환경에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억의 부정확성, 또는 불완전성은 오히려 기억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2)</sup>

셋째, 집합 기억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수렴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에일린 코먼(Alin Coman)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합 기억을 ‘기억의 수렴’(mnemonic

10) Thomas J. Anastasio, et al.,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y Consolidation* (2012), 10.

11) Daniel Schacter, *Searching for Memory: the Brain, the Mind, and the Past* (NY: Basic Books, 2008), 17.

12) Daniel Schacter et al,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constructive memory: remembering the past and imagining the futur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2(2007), 773. 참고로 기억을 왜곡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에 착각이 발생할 때, 이를 착각적 기억 또는 오기억 증후군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성영신·강은주·김성일 엮음,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2004), 192. 한편, 해마와 연관된 내측부엽 구조가 파괴되면 기억상실증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크리스토프 코흐(Christof Koch), 『의식의 탐구』(2006), 220.

convergence)이라고 정의한다. 집합 기억의 기저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형성된 근본적 특징인 공통된 기억과 신념, 규칙의 발달과 결부된다. 집합 기억은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하며, 특히 대화와 소통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코먼은 대화와 소통이 어떻게 개인의 기억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집합 기억이 형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집합 기억은 항상 개별 기억과 결부되어 작용한다. “함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대화 상대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거나 선택적으로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들이 재형성되고 그들이 서로 지지하는 관계로 만든다. 따라서 집합 기억은 근본적으로 대화에 의존하는 역동적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sup>13)</sup>

에일린 코먼 등은 ‘집합 기억’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화자들의 기억이 수렴하는 현상으로서, 이는 소통의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더 가깝게 연관된 경우, 집합 기억의 형성되는 정도, 즉 개인의 기억의 왜곡 정도 및 집단 구성원의 기억의 유사성이 증가한다. 또한 기억의 수렴 정도는 대화 네트워크에서 두 대화자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거리에 따라서 양자 간에 도출된 기억 내용의 유사도에 차이가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코먼은 인지적 현상이 기억의 수렴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sup>14)</sup>

따라서 집합 기억은 기억의 틀 안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확보되기보다는 재구성의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동화되는 과정’이 더 중시될 수 있다. 코먼 등도 집합 기억은 인간 기억의 유연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정의한다. “[인간 기억의] 유연성으로 인해, 또 다른 개인과 더불어 과거를 함께 기억하려는 작용은 대화와 소통의 상대자들 사이의 기억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소통의 네트워크는 인간이 어떻게 집합 기억들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밝혀줄 잠재성을 가진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 수준의 기억을 최신 정보로 바꾸는 현상이나 사회 네트워크 구조는 집합 기억이 나타나는 데에 공헌한 근본적인 두 개의 요

13) Alin Coman, et al., “Mnemonic Convergence in Social Networks: The Emergent Properties of Cognition at a Collective Leve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29 (July, 2016), 8171.

14) 앞의 논문, 8172-8173.

소이다.”<sup>15)</sup> 이들에 따르면, 그러한 의미에서 자서전적 기억들조차도 고정된 정보를 도출하는 고정적인 작업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그 기억 주체가 속한 사회집단 내의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주체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동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애덤 브라운(Adam Brown) 등은 동화의 과정이 곧 집합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억의 유연성(memory's malle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기억은 어떤 특정한 태도나 윤곽,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해 특정하게 고정된 자아를 유지하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유연한 기억 작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집합 기억은 집단 정체성과 사회성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비록 이것이 개인의 구체적인 기억과 집단 내에서의 기억 도출 작업이 구별된다 하더라도, 둘 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측면에서 집합 기억의 특징은 사회적 확산 효과(social contagion)를 보인다. 개인들은 사회적 기억이라는 활동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세부적 정보에 대해서 부정확성을 가질 수 있지만, 특정하게 공유된 정보를 기억으로 인식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억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강화한다.<sup>17)</sup> 또한 집합 기억의 특징은 그것이 선택적이라는 점이다. 공유된 기억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공통된 문화-사회적 맥락이 상당히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기억으로 도출되지 못한 내용들이 개인마다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애덤스 등은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한다.<sup>18)</sup>

넷째, 집합 기억은 불완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을 넘어 문화적 틀 안에서 공감하고 집단으로 인식된 ‘도표(schema)적 개념’으로 해석되기

15) 앞의 논문, 8171.

16) Adam D. Brown, et al, “Memory’s Malleability: Its Role in Shaping Collective Memory and Social Identity,” *Frontiers in Psychology* 3(2012), 257. doi: 10.3389/fpsyg.2012.00257; www.frontiersin.org 웹사이트(최종 수정: 2012년 7월 23일, 최종 접속: 2017년 7월 28일)

URL=<http://journal.frontiersin.org/article/10.3389/fpsyg.2012.00257/full>

17) 앞의 논문.

18) 앞의 논문.

도 한다. 여기서 ‘도표’란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을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수용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르그랑(N. Legrand)과 그의 동료들은 ‘집합 기억’은 하나의 ‘기억 도표’(memory schema)라고 정의하며, 이를 통해 두 뇌와 사회, 문화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집합 기억이란 여러 개인들에 의해 공유된 기억의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역사와 연관된 자기 정체성을 결속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사회와 문화가 개별 인간 존재의 기억 정보와 연관되는 소위 ‘사회적 변환’(social turn)에 대하여 이들은 주목한다.

따라서 르그랑은 집합 기억이 실제로 기억에 관여하고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틀이 모든 인간의 기억 작용 과정에 존재해야 하는데, 그는 이것을 ‘기억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억도표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동적인 지식의 틀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집합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비록 기억이라는 경험이나 작용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는 그 기억 작용의 주체가 속하고 체득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억 작용과 문화적 틀은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다섯째, 집합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현재에 유의미를 전달하는 ‘투쟁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헨리 로디저 3세(Henry L. Roediger III)와 매그덜레이너 아벨(Magdalena Abel)은 집합 기억을 기억의 한 형태로서, 어떤 사회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억이며, 그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억이라고 해석한다. 로디저 등에 따르면 집합 기억은 ‘집합적인 기억하기’(collective remembering)로 정의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집합적인 기억하기란 기억 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따라서 ‘집합 기억’은 역사라는 객관적 지식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집합 기억이 왜곡

19) N. Legrand, et al., “Neuroscience and Collective Memory: Memory Schemas Linking Brain, Societies and Cultures,” *Biologie aujourd’hui Société de biologie*, 209/3(2016), 273.



된, 또는 선호하는 관점에 따라 과거의 사건이나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된다면, 객관적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 기억은 독립적인 개별 활동으로 인식되는 개인적 기억과 구별되는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은 여러 사회적 조직이나 구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은 언제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집합 기억’은 개인 주체를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며, 이 사회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유사한 문화적 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집합적으로 기억’한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헨리 로디저 등은 ‘집합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객관적인 역사 정보와 다르게, 집단 기억은 이미 일어난 과거를 기억이라는 형태로 현실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기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과정을 반복한다.<sup>21)</sup>

여섯째, ‘집합 기억’은 개인의 자전적 기억과 집단의 정체성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정한 기억으로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윌리엄 허스트(William Hirst)는 ‘집합 기억’은 사회집단을 근거로 하

20) Henry L. Roediger III and Magdalena Abel, "Collective Memory: a New Arena of Cognitive Study," *Trends I Cognitive Sciences* 19/7(July, 2015), 359. James V. Wertsch and Henry L. Roediger III, "Collective Memory: Conceptual Foundations and Theoretical Approaches," *Memory* 16/3(2008), 318-326 참조. 고전적인 집합 기억 연구는 주로 질적이며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로디저 등은 1974년, 1991년, 그리고 2009년에 미국 대학생들에게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을 통하여 ‘집합 기억’을 해석한다. 흥미롭게도 역대 대통령 이름이라는 역사적이며 객관적 지식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별 문화의 특징과 차이점, 또는 전반적인 공통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의 경우,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되는 반면, 실형 당시 가장 최근 대통령에 대한 기억력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링컨 이후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까지는 거의 기억을 못하는 편으로 나타난다. 애덤스는 이를 ‘집합 망각’(collective forgetting)으로 정의한다. Henry L. Roediger III and Magdalena Abel, "Collective Memory: a New Arena of Cognitive Study," *Trends I Cognitive Sciences*, 19/7, 359-360.

21) 앞의 논문, 361.

는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라고 정의한다. 개인의 자전적 기억이 주로 그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 형성에 관여한다면, 집합 기억은 어떤 집단 전체의 정체성에 연관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집합 기억’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허스트는 “(1)어떻게 특정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기억들을 공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2) 어떻게 이렇게 공유된 기억들이 집합적인 정체성을 낳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sup>22)</sup> 특히 허스트는 집합 기억에 어떻게 집합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모든 공유된 기억들이 집합 기억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집합 기억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정 집단에 공유하는 기억이나 기억 정보를 전제하지만, 모두가 아는 기억이 집합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허스트는 원주율( $\pi$ )과 2004년 마드리드 폭탄 테러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원주율( $\pi$ )의 값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주율의 값이 곧 스페인 사람들의 집합 기억은 아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2004년 3월 11일에 있었던 마드리드 폭탄 테러를 기억하는데, 이 기억은 원주율과는 달리 분명히 스페인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 폭탄 테러에 대한 공통된 기억은 곧 스페인의 집합 기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집합 기억은 단순히 공유된 기억(shared memory)과 구별되는 개인이 중시하는 사회적 사건과 이와 연관된 집단 정체성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집합 기억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중시하는 부분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의미로서 해석되는 과정에 드러나는 헨리 로디거 3세(Henry L. Roediger III) 등이 지적한 ‘투쟁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코먼(Alin Coman) 등이 강조한 집단 성원의 소통에 비례하는 ‘집합 기억’의 ‘유사성’에 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출발점을 ‘자전적 기억’이라고 강조한 허스트(William Hirst)의 관점도 중시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22) William Hirst, “The Contribution of Malleability to Collective Memory,” in Michael S. Gazzaniga, et al.,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ind: A Tribute to Michael S. Gazzaniga*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0), 140.

23) 앞의 책, 140.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집합 기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장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자서선적 기억'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과 국가의 형성,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 왔다. 물론 '망각'과 '죄'의 역사가 이 '집합 기억'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기억하기'의 집단적 행위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집합 기억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 공동체'가 강화하여야 할 '기억'의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러한 '기억'의 특성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제 다음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집합 기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III. 집합 기억과 신앙 공동체

필자는 II장에서 집합 기억의 뇌 과학적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집합 기억에 관한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개역개정)에 '기억'이란 단어는 총 226건이 검색되며,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 용서, 그리고 개인적 영성과 관계된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내용은 공동체적으로 기억하여야 할 집합 기억에 관한 것이다. 집합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구약성경에서 집합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하나님의 주체적인 구속 행위로 설명된다. "내(하나님)가 기억한다"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기억 행위는 인간과의 '관계적인 유비'(relative analogy)로 묘사된다.<sup>24)</sup>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출 2:24)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는 신이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주체로 표

24) 필자는 하나님의 "기억하신다"와 같은 표현은 인간과 존재로서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론적 유비'(ontological analogy)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된 이유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 그리고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sup>25)</sup>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족장과 민족사의 중심에 있던 모세와 직접 대화하는 창조주로 인식되며, 하나님은 개인과 부족, 그리고 나아가 민족이 ‘집합’으로 기억하여야 할 대상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적인 ‘기억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되며, 이러한 집합 기억의 형식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집합 기억은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 틀 안에서 집단적으로 인식된 일종의 ‘기억 도표’로서 르그랑(Legrand)의 관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강력한 사회적 변환(social turn)의 기제가 된다. ‘하나님의 기억’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며, 백성들이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구약성경에서 ‘집합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명령’으로 나타난다. “너희는 기억하라”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집단 전체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기억 행위’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에 의하여서도 끊임없이 강조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5)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강조한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퍼신 팔과…”(신 11:2)의 내용처럼 점점 잊혀가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반드시 회상되어야 하며, 선조들의 믿음은 저들이 따라야 할 ‘집합 기억’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기억을 명령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대변인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며, 기억하여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이고 기억을 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

25) 하나님의 기억 행위에 대한 주체적 표현의 예로서 “기억하사”(창 8:1), “기억하리니”(창 9:15), “언약을 기억하는”(출 2:24, 2:25, 6:5; 레 26:42, 26:45; 신 16:12) 등의 표현이 있다.

엘 백성, 또는 심판받은 이방인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사와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의 분열기에 등장하는 지도자와 예언자들은 이 '기억 행위'를 강조한다.<sup>26)</sup>

모세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기억'에 관한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의 형태를 가진다. 신탁을 통하여 대변하는 개인들은 사분오열된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특정한 기억을 재현하며, 개인에게 투사하고, 공동체 전체를 통합하는 '집합 기억'을 강조한다. 특히 이 '집합 기억'의 특징은 헨리 로디저 3세(Henry L. Roediger III) 등의 용어를 빌리면, '투쟁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상, 진실과 거짓, 그리고 참 신앙과 불신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하여 선택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재구성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투쟁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한다.

셋째,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의 집합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계된 내용을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의 사건으로 회상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sup>27)</sup> 공생애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부활 사건과 천국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은 제자 공동체 속에서 기억되고 믿음으로 확증되며, 나아가 장차 성령강림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과 연관이 된다. '집합 기억'은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이 관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그 집합 기억은 비로소 그 의미가 실제로 드러나며,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눅 24:8)와 같이, 제자들의 기억 행위는 공유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2)와 같이 부활은 언약이며 예언의 성취인 것

26)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강조는 모세오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 왕정기와 남북왕조의 분열기와 바벨론 포로기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16:3, 16:12, 24:9, 24:22, 25:19, 30:1, 32:7; 대상 16:15; 렘 44:21; 애 1:7, 5:1; 겔 6:9, 21:24, 29:16, 36:31; 호 7:2, 8:13, 9:9, 12:5; 암 1:9; 미 6:5; 학 2:15, 2:18; 숙 10:9, 13:2; 말 4:4.

27) 이와 연관된 '집합 기억'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16:10, 26:13; 막 14:9; 눅 23:42, 24:6, 24:8; 요 2:22, 16:4.

이 공동체적으로 확증된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집합 기억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통된 기억과 신앙,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강화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일린 코먼(Alin Coman)의 용어를 적용하면, 이는 대화의 형식을 통하여 역동적인 체계로 발전하는 집합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였다. ‘제자 공동체’의 이 특별한 경험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공생애 기간 중에 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고 해석하고 서로 신앙으로 확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비록 제자들 사이에 예수를 인지하는 기억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의 특별한 소통은 기독교를 탄생시켰으며, 집합 기억은 후손들을 위하여 경전과 교리, 그리고 교회라는 제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을 기억하고, 선교의 여정 중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와 말씀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능력이 집합 기억으로서 강조된다.<sup>28)</sup>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전 11:2) 에서와 같이, 사도들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함께 기억되어야 할 유산이며, 전통으로 연결되어야 할 기억이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갈 2:10)에도 나타나듯이, 사역의 핵심을 함께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힘써야 하는 내용이 강조된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억의 형태는 ‘자전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개인적 기억은 선교하는 과정 중에 형성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의미하게 재현되며, 애덤 브라운(Adam Brown)의 이론을 적용하며, ‘사회적 확산’(social contagion)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대교를 넘어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은 서로 다른 문화 사회적 환경과 때때로 갈등을 일으

28) 이와 연관된 집합 기억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 20:35; 고전 11:2; 갈 2:10; 엡 1:16; 살전 1:2, 1:3, 2:9; 살후 2:5; 딤후 2:14; 딛 3:2; 히 8:12, 10:17; 벧후 3:2; 유 1:17.

키거나, 아니면 상호 협력하면서 집합 기억은 사람에 따라서 선택적이 된다. 따라서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 내용은 문화와 환경, 성과 연령, 인종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집합 기억이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또한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성경 전체에 집합 기억이 강조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의 ‘망각’ 행위와 연관이 된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 된 본성과 기억하여야 할 계명과 말씀에 대한 긴장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는 창조주(창 9:16; 대상 16:15)인 반면, 인간은 의지적으로 회상하고 다짐하여야만 기억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 행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신 7:18).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래 비참하였던 과거 종의 신분을 종종 망각한다(신 16:12, 24:18, 24:22, 32:26). 심지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한다(삿 8:34). 신약성경에서도 제자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기적과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므로 지적을 받는다(막 8:18).<sup>29)</sup> 심지어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막 14:72)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늦게 기억한다.

이런 맥락에서 집합 기억은 인간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의 종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집합적인 기억하기’가 요구되는 기억이다. 인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특징이 있으며, 집단에서 서로 부정확한 기억을 나눔으로써 기억의 유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의도적으로 기억을 생략하거나 망각하고, 그리고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sup>30)</sup> 이런 맥락에서 ‘집합 기억’은 계량적으로 기억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없으며, 개별기억과 연관되어 어떤 기억들은 선택적으로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간

29) 눅 24:6, 24:8; 요 2:22, 16:21.

30)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병적 허언증’(pathological ly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거짓말을 실제 일어난 일로 믿는 경우 생긴다. 한편, ‘그릇된 신념’의 경우는 잘못된 것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K. A. 메닝거, 『인간의 마음—무엇이 문제인가?』(1986), 353, 373. 필자는 종교 교적인 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생물학적인 허언증이나 그릇된 신념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집합 기억은 죄악에 물든 인간과 협력하여 악을 이루는 집단의 약점을 잘 지적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의 집합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인간에게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야 하는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특히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기억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지속되는 ‘연대 기적 공동체’의 행위이며, 이스라엘의 분열기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집합적 기억 행위와 연관이 된다. 한편, 기억은 복음을 전파하는 인지적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기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집합적 기억과 연관되며, 선교에 적용되고, 기도를 통하여 회상되며 서로 교제하는 영적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집합 기억에 관한 일반이론을 성경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보았다. 특히 집합 기억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억 행위’와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과 적용을 근거로 기독교 윤리의 맥락에서 강조하여야 할 관점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집합 기억과 기독교 윤리

필자는 II장에서 집합 기억의 뇌 과학적 관점을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 집합 기억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성경과 연관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필자가 중시하는 점은 집합 기억의 윤리적 관점이다. 기억이 사회 구성체와의 상호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면, 기억 또한 윤리적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어떤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집단 안에서 상호 의사교류와 연대 또는 갈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일련의 윤리적 책임과 연관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집합 기억의 이론들은 사회구성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수치화할 수 있는 집단 기억에 관한 고전적인 방법론보다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들, 그리고 부정확하지만 유연한 기억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기억들이 사회 네트워크 구조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별 기억들 사이의 소통구조에 관심을 가지며, 각 기억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현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합 기억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기억하기'(remembering)라는 의식적 인지행위가 개입된 집합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 기억은 기억의 한 측면이며, 일반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도출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정보의 객관성보다는 기억주체의 기억 작용 및 기억으로 도출된 정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적 집합 기억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한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 경우, 기억이라는 작용은 정적인 지식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집합 기억에 대한 연구는 보다 포스트모던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기억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며, 일종의 '큰 기억'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기억'을 회상하고 재구성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성경 안에 회상되는 기억들에 대하여 보다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외된 약자들의 기억, 여인들의 기억, 어린이들의 기억, 자연 생태계에 대한 기억 등이 이스라엘 역사나 특정한 인물들 중심의 '큰 기억'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각 기억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본래의 의미가 되살아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기준의 역할을 하는 성경의 기억들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고, 성서적 비평의 관점을 넘어 집합 기억의 차원에서 '작은 기억'들을 중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집합 기억이 기억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통합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투쟁적 성격인 기억의 정치적 요소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억의 정의'(justice of remembrance)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우리가

31)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큰 기억', '작은 기억' '기억의 정의', 그리고 '기억의 정치'와 같은 표현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선행 연구가 없이 논지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하는 것임을 밝힌다.

기억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검열된 것일 수 있다. 미디어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역학 구조에 의하여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대중은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주어지는 정보를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소비하는 데에 몰두하게 된다. 필자가 중시하는 점은 기억은 그 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소통되고, 그리고 잘못된 기억은 시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 기억'은 '올바른 기억'을 회상하고 현실에 재구성하기까지 끊임 없는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집합 기억'을 위한 투쟁이 중요함을 제시한다고 본다. 특히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잘못된 기억'이 역사화되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왕권이나 무력을 동원하여 '올바른 기억'을 '거짓의 기억'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망각의 늪'으로 내모는 당시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계약사상은 이를 대변한다고 본다. 인간과 집단은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에 의지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외쳤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였다. 성육신 하신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억을 정면으로 수정하기를 요청한다. 산상수훈(마 5-7장)을 통하여 사랑, 구제, 기도, 금식, 돈, 결혼관에 대한 가치관을 수정하고 새로운 '집합 기억'을 형성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방인의 사도'(롬 11:13; 갈 2:8)와 '스승'(딤후 2:7)으로 자처하고 새로운 '집합 기억'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올바른 집합 기억은 잘못된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고 반성하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개뿐 아니라 미스바의 회개 운동처럼 집단적 차원에서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은 인간의 행위를 유추하는 '기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아가 집합 기억을 구성하는 사회 소통의 체계와 소통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집합 기억'이 공동체에 정의롭게 공유될 수 있는 사회 구성체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뇌 과학은 집합 기억에 관한 유용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 한계도 있다고 본다. 권력에 의한 미디어의 조작으로 집합 기억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밝혔지만, 인간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하고 거짓 기억

을 정의로운 기억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본다. 물론 인간의 기억을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까지 동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마저 속이려 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신학적 관점은 뇌 과학의 집합 기억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인간의 기억도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억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억에 관한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지음 받은 인간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함께 “기억하여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하는 존재”이다. 만일 인간이 올바른 기억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의 상실이며 존재의 모호성에 빠지게 된다. 기억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항상성을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입력된 기억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존재 자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집합 기억이 ‘존재론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직시하고, 기억이 구성되는 생물학적 조건, 기억이 소통되는 네트워크, 기억이 공유되고 재현되는 사회구성체, 집단적 기억이 윤리적 가치 행위로 나타나는 책임의 장, 집단적 기억과 기억의 산출 이후,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과 반성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성경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는 말씀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예수 자신은 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 쪽은 자신들이 한 행위를 사실에 관계하여 분명한 기억임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 쪽은 그 기억을 부인한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갈릴리 사람 예수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두 여중 앞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마 26:69-75).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뇌의 착각으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인간의 기억이나 집단의 집합 기억은 따라서 자연적인 것이거나 객관화가 가능한 수량적인 인지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의식은 기억 행위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고려하고 조작하며 심지어 성경의 내용처럼 ‘예수’에 대한 기억을 무시하고 ‘바라바’에 대한 허위 기억으로 바꾸기도 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억은 과거의 문자화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공유되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그 기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잘못된 기억을 입력하고 그 기억이 올바른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성경의 기억을 회상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기억을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공동체의 기억 행위는 뇌 과학적인 기억에 대한 해석을 넘어선다고 본다. 성경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눅 12:12)고 기록되어 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요 16:4)의 말씀처럼 인간은 기억 행위조차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기억이 ‘집합적’이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한된 기억들이 연대하여 가치 있는 기억으로 재현되고, 그 기억이 신앙공동체와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주제어

뇌 과학, 집합 기억, 기억의 정의,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윤리 (brain science, collective memory, justice of memory, Christian community, Christian ethics)

접수일: 2017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31일

## 참고문헌

- 메닝거, K. A./설영환 옮김. 『인간의 마음—무엇이 문제인가?(1)』. 서울: 선영사, 1986.
- 박문호. 『뇌-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 성영신·강은주·김성일 엮음. 『마음을 움직이는 뇌, 뇌를 움직이는 마음』. 파주: 해나무, 2004.
- 유경동. 『뇌신학과 윤리』. 서울: 킹덤박스, 개정판, 2016.
- 이나스, 로돌포/김미선 옮김. 『꿈꾸는 기계의 진화』. 서울: 북센스, 2007.
- 코흐, 크리스토프/김미선 옮김. 『의식의 탐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Anatasio, Thomas J. et al.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y Consolidation: Analogous Processes on Different Level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2.
- Brown, Adam D. et al. “Memory’s Malleability: Its Role in Shaping Collective Memory and Social Identity.” *Frontiers in Psychology* 3(2012), 257. doi:10.3389/fpsyg.2012.00257. doi: 10.3389/fpsyg.2012.00257; www.frontiersin.org 웹사이트, (최종 수정: 2012년 7월 23일, 최종 접속: 2017년 7월 28일) URL=http://journal.frontiersin.org/article/10.3389/fpsyg.2012.00257/full
- Coman, Alin et al. “Mnemonic Convergence in Social Networks: The Emergent Properties of Cognition at a Collective Leve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29(July, 2016), 8171–8176.
- Hal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Tr.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Gazzaniga, Michael S., et al.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ind: A Tribute to Michael S. Gazzaniga*.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0.
- Legrand, N. et al. “Neuroscience and collective memory: memory schemas linking brain, societies and cultures.” *Biologie aujourd’hui Société de biologie* 209/3( 2016), 273–286.
- Roediger III, Henry L. and Abel, Magdalena. “Collective Memory: a New Arena of Cognitive Study.” *Trends I Cognitive Sciences* 19/7(July, 2015), 359–361.
- Schacter, Daniel et al.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Constructive Memory:

Remembering the Past and Imagining the Futur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2(2007). 773–786.

Schacter, Daniel. *Searching for Memory: the Brain, the Mind, and the Past*. NY: Basic Books, 2008.

Wertsch, James V. and Roediger III, Henry L. “Collective Memory: Conceptual Foundations and Theoretical Approaches.” *Memory* 16/3 (2008), 318–326.

## 한글초록

기억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여 인간의 행위를 지속케 하는 뇌의 정신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은 주로 대뇌피질과 측두엽의 신피질, 그리고 해마(hippocampus)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인과관계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삶을 지속케 한다. 뇌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기억에 관한 연구는 집합 기억에 대하여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기억은 물론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억은 동시에 일련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집합적 기억’이기 때문에, 집단을 구성하는 인간의 정치나 윤리적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필자는 이 관점을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필자는 뇌 과학에서 강조하는 집합 기억에 대하여 신학과의 통섭(consilience)을 위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뇌 과학의 집합 기억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보겠다. 특히 집합 기억의 중요한 기능인 기억작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둘째, ‘집합 기억과 신앙공동체’란 관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억’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망각’을 극복하는 책임윤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집합 기억과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 뇌 과학과 신학의 통섭을 시도하면서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인간의 기억이나 집단의 ‘집합 기억’은 자연적인 것이거나 객관화가 가능한 수량적인 인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의식은 기억 행위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고려하고 조작하며 심지어 성경의 내용처럼 예수에 대한 기억을 무시하고 바라바에 대한 기억으로 바꾸기도 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억은 과거의 문자화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공유되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그 기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잘못된 기억을 입력하고 그 기억이 올바른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소비하

는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성경의 기억을 회상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서 그 기억을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 Collective Memory and Christian Ethics

Kyoung-Dong, Yoo

Professo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Memory(remembrance) is a mental interaction of the brain that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to sustain the human behavior. Cerebral cortex, neocortex of the temporal lobe and Hippocampus are in charge of human memory, systematically sto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a casual relationship to sustain life. Memory revealed by the neuroscienc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ollective memory' as well. Certainly, the memory plays, primarily, the role of sustaining personal homeostasis in humans but at same time, since memory is a 'collective memory' formed through a series of social interaction, it is not irrelevant to the politics or ethical behavior of human that form a mass, and the author will place this perspective 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The author will unfold the argument from three points of view for the consilience of theology with the 'collective memory' that is emphasized by the neuroscience. Firstly, theories regarding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neuroscience will be organized. Especially, the role of 'social consolid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memory, which is a crucial function of the 'collective memory' will be the center of examination. Secondly,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logy of the collective memory,' the author will try to organize what the core substance of the 'memory' emphasized by the Bible is.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how the community overcomes the state of 'oblivion' of God and neighbours through the behavior of 'remembering' will

be examined. Thirdly, by attempting the consilience of neuroscience and theology through the 'Christian ethics of collective memory,' the ethical challenge will be presented.

The author will leave out the interpretation and the biological functions regarding the memory from this article. Instead I attempt to introduce points of arguments concerning the 'collective memory,' and apply them to theology and to Christian ethics. Hopefully, the consilience with theology through theories regarding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neuroscience, still an unexplored field in Christian theology, will contribute to the fundamental development of each field.